



## 원장 취임 후 첫 공식 노사협력 본회의 열려 주요의제 실무협의로 넘겨,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나

우리 노동조합이 지난 2월 6일(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먼저 제안하여 개최된 첫 노사협력회의 본회의가 특별한 성과없이 끝났다. 지난 2월 28일(수) 오후 2시부터 개최된 노사협력 본회의는 전임 원장 재임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넘어온 경영혁신 주요의제(34개)와 함께 우리 노동조합이 연구원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추가로 제안한 의제(8개)를 포함하여 총 42개 의제를 노사협력회의 본회의의 주요의제로 일괄 상정하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실무회의를 주 1회로 배치하고, 본회의를 통하여 결과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되 노사협력 본회의는 매월 개최 가능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신임 원장이 부임하여 처음으로 개최된 첫 노사협력회의에서 최 문기 대표위원은 노사협력 회의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으로 인사말을 대신하였으며, 노동조합 한주동 대표위원은 최근 들어 많은 직원들이 연구사업수주 등 대.내외적인 연구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에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불안감은 결국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연구분위기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금번 노사협력회의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한주동 대표위원은 금번 BcN연구단을 비롯한 일부 직할부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구사업수주 미확보 문제가 어느 특정부서만의 일이 아니라고 밝히고, 연구원에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말하고, 연

구원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입장을 소상히 밝혀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고갈에 따른 대응전략 및 지난해 11월 20일 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준 PBS 제도 도입의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청에 원장은 BcN연구단의 문제는 연구원 차원에서 미리 대비하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 말하고, 향후 타 직할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밝히는 한편, 현재 연구원 차원에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정부 측과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노동조합에 통지해 주겠다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다만, 내년도 사업예산은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매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혀 향후 연구사업수주에 대한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준 PBS 제도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과기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3월 9일(금) 과기부 혁신본부장이 ETRI를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증폭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조속한 시일 내 연구분위기 안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연구사업 수주 등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노사협력회의의 주요 의제: 기사 2면 표 참조)

<2007년 노사협력회의의 교섭위원 명단>

구 분	노동조합		연구원	
	성명	직책	성명	직책
대표위원	한주동	수석 부위원장	최문기	원장
교섭 위원	김귀동	부위원장	오수영	IT융합 부품연구소장
	제동국	부위원장	안치득	통 방융합부문수석연구단장
	김정기	사무국장	김채규	S/W 컴퓨팅부문수석연구단장
	김민수	운영위원	박석지	기획본부장
교섭위원(간사)	김진경	운영위원	조관제	행정본부장
	조성목	운영위원	정영식	인력관리실장

# 주 장

## 연구사업 수주위기 책임지는 미덕 필요하다 권한은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풍토 반드시 사라져야

IT 산업의 호황기는 지나가고 있는가? 우리 연구원의 연구사업수주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금년초 BcN단에서부터 출발된 연구사업 미확보는 일부 다른 직할부서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조합이 확인한바에 따르면 금년도는 그나마 나은 형편이지만, IT839 사업이 사실상 종료되는 금년 말을 기점으로 2008년부터는 연구사업 확보는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각종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1,000억 ~2,000억원씩 줄어든 정보통신진흥기금은 3년후인 2010년도에는 350여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R&D 연구사업 비중의 80% 이상을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출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은 더욱더 커진다. 이러한 진흥기금 고갈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은 비단 금년도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조합은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원측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요구하여 왔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시책에 맞춰 출연기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인건비 확보를 위해 상용화사업에 더욱더 매달린 결과라 할 수 있겠지만, 미래사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 연구원의 경영진 또한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이다. 연구원은 지금이라도 연구사업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 및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직원들이 안정된 연구분위기 속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 역시 지난 소식지(2007년 신년호)를 통해 밝힌바와 같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PBS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정보통신분야에 황무지였던 '80년 초 교환기술연구단(현 BcN단) 직원들은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당시 정부 관

계자 및 주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던 전자교환기(TDX)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통신기술을 한차원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러한 훌륭한 원천기술에 힘입어 우리 ETRI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CDMA, WiBro, DMB 등의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가핵심기술개발을 이끈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BcN연구단 직원들은 연구사업 수주 미확보로 인해 타 연구단으로 진출을 가야하는 신세로 전락하는 등 그 명예에 큰 손상을 입게되었다.

물론, 과거와는 다르게 IT기술개발의 발전은 급성장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원 개인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연구사업 기획 및 조직의 비전 제시, 연구사업수주 미확보 등에 대한 경영 책임은 전적으로 그 조직을 책임지고 이끌어온 부서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 부서장을 믿고 따르겠는가? 지금이라도 사업의 다각화를 위하여 조직의 구성원들이 한몸이 되어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단결된 힘이 나올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 연구원들은 그 어느것보다 명예와 자존심을 살리고 싶을 것이다. BcN단 직원 J 씨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연구원의 풍토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BcN단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길을 더 주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우리 노동조합이 직할부서장에 대한 책임경영 제도입(계약제 전환)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자는 이유에서다. 적당히 넘어가는 문화에서 벗어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할 때 ETRI는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 원장은 연구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한다는 취지를 살려 조직의 비전 제시 및 연구사업 미확보 등 연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서장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 <2007년 노사협력회의 주요 의제>

번호	진행 중인 혁신아이템(신규 포함)		
1	연봉제 개선	15	연구원 대외 홍보역량 강화
2	직급체계 개선	16	행정전문화
3	Dual Ladder 도입	17	기획 행정부문 고효율화
4	인사위원회 개선	18	행정불편 신고센터 운영
5	비보직 고경력자 대책	19	행정서비스 평가제 도입
6	보직임기제	20	일품 행정서비스 방안
7	조직구조 개선	21	수요중심 서비스 패키지
8	사업개발부서 활성화	22	업무편람
9	평가체계 개선	23	행정혁신 4개 서브아이템
10	기술로 인센티브 개선	24	명예퇴직기준 완화/전직지원 강화
11	연구원 겸업제도	25	계약직원 채용조건 변경
12	HR- HR 기술강화 전략	26	연구환경 개선 마스터플랜
13	ITEC 역량 극대화	27	모범 행정서비스 직원 포상
14	사업수주활동 합리화	28	최고기술 전문가 포상제도
		29	연구 성과분석/활용, 사후관리 프로세스
		30	PM 제도 개선
		31	세계 1등기술(TmT) 도전 전사적 추진
		32	국제 표준 프로세스 수용
		33	기술정책 전문가 양성 및 활동 체계화
		34	아웃소싱 강화 방안
		신규	영유아 보육시설 연구원 외부 설치
		신규	2007년 인재개발계획 프로그램
		신규	비정규직(계약직연구원) 근로조건 개선
		신규	노사 비리센고센터 설치요구
		신규	금년도 임금인상 상반기내 합의
		신규	미래기술연구그룹 예산배정의 문제점
		신규	BCN연구단 후속사업 중단 후속대책
		신규	징계직원 보직 제외

# 2006년 성과급 189% 지급 역대 최고

## 내년부터는 정부지침 반영, 금년도 1/2수준으로 격감 예상

노동조합과 연구원은 2006년 성과급 지급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지난 11월 30일 선 지급한 50%를 포함하여 총 189%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139%는 3월 9일(금)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총 150%를 지급한 것과 비교하여 ETRI에서는 처음으로 최고의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 셈이며, 지급방식과 적용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지급대상은 정규직과 전일제 계약직원(3월 9일 현재 재직 중) ▶무급휴직 및 교육과견 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 ▶6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당 금액의 1/2을 받고 ▶6개월 이상 1년 이하 근무자는 근무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아래 표 참조).

그러나 내년부터는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급 규정에 맞춰 지급하게 되어있어 최고로 지급하는 것은 아마도 금년이 마지막이 될 확률이 높은 편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지침에 의하면 출연기관 성과급 지급수준은 금년 수준의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정부의 성과급 가이드라인 제시는 출연기관의 자율성 및 이공계 기피현상을 부추기는 행위로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규정이라 판단하고 과기노조 및 상급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표> 성과급 산정 계수 등급별 지수 현황

구분	평가등급	S	A	B	C	D	
개인평가 지수		1.4	1.2	1.0	0.8	0.6	
평가군별 지수	평가군					지수	
	직할부서장급					1.5	
	부/실장급					1.4	
	팀장급					1.3	
	비보직자	책임급					1.2
		선임급					1.1
원급/기능급					1.0		
청경					0.6		
경영평가 및 사업평가 지수	A		B		C		
	1.2		1.1		1.0		

## 노동조합, 연구원 내 비리 부패방지센터 운영키로

노동조합은 연구원 내 여러 형태의 금품수수 또는 개인적인 향응을 제공받는 등 연구원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직원들의 지적에 따라 노동조합 내 부패방지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각종 루머는 연구원 내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소문만 무성할 뿐 확인되지 않아 연구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현재 연구원 측에서도 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각종 불합리한 내용 및 비리 등을 수렴하고 있으나, 신고자 신분 노출 및 직원들의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유명무실화되어 왔다. 이에 노동조합은 연구원이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하고, 사안별 분석을 통해 문제해결 요구 및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 ETRI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9.11점)로 전래(9.13)보다 약간 하락하였으나, 상위 순위 14%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금품 향응 수수 2건, 편의요구 2건이 적발된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평가내용 중 “부패통제” 부분의 “이의제기의 용이성”이 6.5점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ETRI는 부패를 방지할 통로가 막혀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직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여러 형태로 나누어지지만 특히, 연구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보를 해오는 경우가 있어 사실일 경우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연구원 내 소문으로 떠돌아 다니고 있는 여러 형태의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 받는 사례에 대해 연구원 경영진에 수차례에 걸쳐 알리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마련과 더불어 각종 회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그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으로 요청해 왔었다. 노동조합은 부패방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조사에 한계를 가질 수도 있으나, 신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사실여부의 확인 등은 연구원측과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가능한 내부해결을 적극 모색하고자 한다. ETRI에서 부패한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신고방법은 구두 또는 메일(김정기, [jjk@etri.re.kr](mailto:jjk@etri.re.kr)), 전화(6369) 등 방식에 국한하지 않으며 당연히 신고자에 대한 신분 및 비밀이 보장된다.

# 산업기술연구회 이호일 이사장 방문 감사규정 개악 항의

우리 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은 금번 과기 부총리 지시로 개정된 감사규정이 개악되었다고 판단하고, 연구원의 관리감독기관으로 되어있는 산업기술연구회 이호일 이사장을 항의방문(2월 21일) 하였다.

우리 노동조합 한주동 수석부위원장은 감사규정 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항목별로 지적한 뒤 감사인에 대해 평가우대, 수당지급, 판공비 인상(비상임 감사 100- > 200만/월) 등 감사인에 대한 혜택과 권한은 대폭적으로 늘어난 반면, 감사 실시에 따른 책임 부분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밝히는 한편, 감사규정 개정 시 직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이유와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고 감사규정에 대한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과기노조 이영순 사무처장은 이사회 및 출연기관이 규정개정 변경시 사전에 과기노조 및 지부 조합에 통지하기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은 단협위반이라 규정하고, 전체 직원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감사규정을 직원 대표나 노동조합의 의견은 배제한 채 감사인들 만 모여 의견

수렴을 하고 규정을 개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이호일 이사장은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감사규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적절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3개 이사회(기초, 공공, 산업) 이사장 회의시 정식 안건으로 제안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그 결과를 통지해 주기로 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이 이사장과의 통화에서 확인바에 따르면 이사장단 회의 결과로 출연기관별로 감사규정 개정에 대한 시행여부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이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금번 감사규정 개정은 직원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과기노조 및 상급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이사장 항의방문에는 과기노조 이영순 사무처장을 비롯한 화학(연) 이운복 지부장, 식품(연) 정달영 지부장, ETRI 노동조합 한주동 수석 및 김정기 사무국장이 함께하였다.

## 노동조합, 여직원 운영위원 확보 3월부터 운영위원 활동 시작

노동조합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2007년. 연초부터 노동조합에 새롭고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주 김두식 조합원을 운영위원으로 새롭게 맞이한데 이어, 지능정보연구원 단의 문애경 조합원이 운영위원으로 활동기로 하였다.

매주 1회 정례적인 회의를 갖고 노동조합 및 연구원의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 등 일상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그동안 여성 운영위원의 참여가 없어 여성조합원들의 여론 및 요구사항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노동조합은 문애경 운영위원의 결함을 크게 반기고 있다.

노동조합 역시 여성의 입장에서 현안문제를 바라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은 2007년 사업계획에 여성보직자 수 상향조정 및 육아 보육시설 확보 등 여성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노동조합 정기 대의원대회 3월 12일 개최 예정

우리 노동조합은 3월 12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2007년 사업계획 및 추진 방향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노동조합은 ▶ 조합원 배가 ▶ 과학기술 정책 요구 사업화 방안 수립 ▶ 일상활동의 체계 정립 및 강화 ▶ 대외·연대 활동의 모범 창출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 조합원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임금협약 추진을 포함하여 지난해 미 합의된 경영혁신 사항 및 추가 현안문제 등을 노사협력회의 의제로 상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의원대회에서는 노동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을 검토하고, 2007년 임금협약 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한 후 전체적인 사업 기초를 확정하게 된다.

## 노동조합, 연구단지 주유소와 ETRI 협력업체 체결, 안경점, 자동차 정비소 등도 운영

노동조합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도릉동에 위치한 '연구단지 주유소'를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ETRI 임직원이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더 할인된 가격으로 혜택을 부여받기로 했다. 노동조합은 주유소 이외에도 안경점(신성동 길 안경원)과 자동차 정비소(전민동 현대카 서비스)를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협력업체로부터 일체의 수수료 없이 직원들의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CMS 자유게시판 공지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